"구호활동 문제 해결 직접 나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나르기스' 피해 미얀마 이번주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구호활동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에 미얀마를 방문한다.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18일 반 총장이 미얀마의 구호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21일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반총장은 미얀마에서 3일간 머물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라와디 삼각주 지역을 둘러보고 양곤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얀마의 고위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그러나 반총장이 미얀마 군정 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몽타스 대변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총장은 그동안 미얀마의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탄 슈웨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총장의 미얀마 방문은 미얀마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위한 외국 지원에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구호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몽타스 대변인은 반총장의 이번 미얀마 방문 목적은 구호 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총장은 자신의 방문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총장의 미얀마 방문은 미리 잡혀 있던 다른 일정들을 취소하면서까지 이뤄져 미얀마 구호활동 해결이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총장은 앞서 대규모 구호활동에 문 열기를 꺼리는 미얀마를 설득하기 위해 존 홀름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을 미얀마에 파견했다.

국제사회의 구호 물자는 받아들이면서 외국 구호인력의 입국을 수용치 않았던 미얀마 군정은 최근 들어 점점 많은 외국의 구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음식과 물, 의료 지원 등을 제대로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강진 피해지역 전염병 발생

치사율 높은 '가스괴저병' 감염자 계속 증가

대지진이 강타한 중국 쓰촨(四川)성 피해 지역 일대에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쓰촨성 위생국은 18일 오후 6시 현재 전염병인 가스 괴저병 환자 58명이 성도 청두(成都)의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9일 보도했다. 즉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가스 괴저병 환자는 화시(華西)병원, 쓰촨성 인민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청두군구 총병원 등 다른 병원의 환자 중에도 유사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 전염병 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화시병원 전염병센터의 탕훙(唐紅) 주임은 가스 괴저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 5명이 지난 14일 이 병원을 처음 찾은 이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히고 검사 결과 지진 피해 지역에서 대피해 온 이들은 모두 가스 괴저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시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27명의 환자 중 3명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치료 중이지만 대부분은 상태가 양호하다고 탕 주임이 덧붙였다.

그람 양성균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가스 괴저병은 법정 전염병은 아니고 상처를 통해서만 전염되지만 일단 감염되면 급속히 번져 사망률이 높다.

한편 지진 피해 지역을 시찰 중인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는 18일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대지진 발생 이후 전염병 창궐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日총리, 사흘걸쳐 17시간 동안 阿 52개국 정상과 마라톤회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 각국 정상 등 50여 명과 마라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후쿠다 총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橫浜)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52개국 지도자들과 일일이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중 1개국만 불참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가원수 35명, 총리 7명, 부통령 3명 등이 참석한다. 또 아프리카 빈곤 추방 운동을 벌이는 록그룹 'U2'의 보노, 노벨평화상 수상자 완가리 마타이, 아프리카연합(AU)의 장핑 위원장 등도 면담한다. 회담 시간은 개막 전날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 17시간으로,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당 20분을 할당하고 있다.

회담은 3건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15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71세의 고령인 후쿠다 총리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에이즈는 싫어요" 2007년 미스월드 중국 출신 지린 장 양이 18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제 에이즈 촛불 추모식에 참석, 네살배기 어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AP연합뉴스

인도-파키스탄 20일 평화회담 재개

파키스탄의 정국 불안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평화회담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재개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2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외무장관 등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에 걸친 평화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파키스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파키스탄 신정부와 인도의 관계 설정에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방일보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공동기획 파병지역 문화 바로알기

■이슬람 신앙체계-믿음편

확고한 믿음 위해 '六信'을 둠

종교는 그 뿌리를 이루는 신앙체계가 있다. 이슬람은 믿음과 행함을 두 기둥으로 하는 신앙체계로 구성돼 있다. 믿음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으며 행함은 나무 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믿음은 교리를 지칭하는 부분이고 행함은 실천해야 할 종교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은 아랍어로 이만(Iman)이라고 하며 행함은 아랍어로 아말(Amal)이라고 한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교회나 사찰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이슬람은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섯 영역을 두어 이를 믿도록 한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행함을 통한 실천을 위해 다섯 영역을 두고 있다. 전자를 일명 6신(六信)이라고 하며 후자를 5행(五行)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간략히 6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무슬림은 다음과 같은 여섯 영역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알라·천사·성서·정명론 등 알라 영역 안에서 믿음 강조

첫째, 알라(Allah)를 믿어야 한다. 유일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보면 일부 학자는 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에서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 학자는 신의 속성이 다르다며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슬람 입장에서는 알라는 우주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그분에 비교할 것도 없으며 유일무이한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에 대한 의심을 한다거나 부정하는 것은 대죄(al-kabiir)에 해당한다. 입교 시에 '라 일라 일랄라'라고 낭송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로 유일신을 심증으로 확신하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코란 112장에는 알라는 한 분이시기에 성부와 성자도 두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둘째, 천사를 믿어야 한다. 자유 의지가 없는 천사는 빛으로부터 창조됐으며 이들은 알라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수동적 존재다. 태초에도 천사는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부복하도록 명령받고 순종했다. 천사는 신의 대리자로 모든 인간에게 네 명의 천사가 붙어 있어 선악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천사 중 가장 서열이 높은 가브리엘이 있다고 한다.

셋째, 사자(使者, 아랍어로 Rasuul)를 믿어야 한다. 알라께서는 수많은 예언자와 사자들을 보냈다고 한다. 지상으로 보낸 수가 12만4000명을 넘는데 코란에는 단 25명의 이름만 언급돼 있다. 사자는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예언자(아랍어로 Nabii)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사자나 예언자는 알라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들로 여러 시대에 걸쳐 보내진 완벽한 믿음의 표본이라고 한다.

넷째, 성서를 믿어야 한다. 알라께서는 인간들에게 신의 지침서를 내려보냈으나 중간에 훼손된 것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수후프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 필자 제공

계시했으나 분실돼 버렸고 그 후 모세에게 토라를, 다윗에게는 자부르(즉 시편), 예수에게는 인질을 계시했으나 많이 변질됐다고 한다. 이에 아랍어로 영원히 보존될 책으로 신의 말씀이 담긴 코란을 무함마드에게 내려주었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코란을 읽으면 신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코란을 읽고 낭송한다.

다섯째, 최후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 이슬람은 인간의 육체적 발달 단계를 흙의 단계, 자궁 내의 단계, 탄생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흙에서 인간이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동일하나 죽음을 끝이 아닌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심판일은 그 누구도 모르고 알라만이 아신다고 코란 7장 187절에 기록돼 있다. 예수는 다마스커스로 재림한다고 한다. 심판일은 부활의 날로 태어났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 심판주인 알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여섯째, 정명론(定命論)을 믿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법칙에 순응하며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나 그것은 신이 가진 완전한 자유의지와는 다르다. 즉 미완성의 인간은 완전한 알라의 영역 안에서 그의 섭리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도 박사 한국외대 초빙연구원

러, 쇄빙선 파견에 북극 영토다툼 가열

러시아가 북극해에 원자력 쇄빙선 함대를 파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극 석유 자원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각축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두 8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쇄빙선 함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최대 2.4m 두께의 얼음을 깨뜨리면서 북극 빙상의 광대한 영역을 순찰하고 있다. 영국·미국 등 다른 국가의 쇄빙선 함대 규모는 이에 한참 못미칠뿐더러 원자력 쇄빙선은 한 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극 빙상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른 북극 인접국들은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북극 해저지도 제작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0만 달러(약 208억 원) 규모였던 북극 해저지도 제작 예산을 두배로 늘렸다.

연합뉴스

■편집 =주재경 기자

제42회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합격자 공고

2008년도 전반기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0.
국 방 부 장 관

■연대장 : 9명
●전남(1) : 김종철 ●충남(1) : 배정한(대학) ●경남(1) : 최명석(대학)
●경북(2) : 김홍곤(대학), 하종안(대학) ●수원(2) : 김정건(대학), 최석환
●강남(1) : 조연환 ●강북동부(1) : 박봉수(대학)
■대대장 : 6명
●전남(2) : 박재원, 이 용 ●충남(1) : 노영준 ●부산(1) : 장현식
●강남(1) : 강성룡 ●강북동부(1) : 김종욱(대학)
■지역예비군중대장 : 173명
●춘천 (1) : 김재유 ●인제(1) : 김영근 ●강릉(3) : 김동섭, 진연창, 최철두
●원주 (4) : 김성곤, 김정섭, 이정석, 이춘세
●전남(26) : 강성민, 강홍원, 김규영, 김동기, 김주식, 김주환, 김재섭, 김창호, 김하영, 김형호, 김호철, 김홍주, 모경원, 박규동, 박용철, 박정수, 성규영, 안영기, 엄태길, 여인혁, 오승현, 유병진, 이석주, 이현행, 최성규, 최임주
●충남(15) : 김광우, 김규태, 김길봉, 김대열, 김명환, 김상룡, 박지완, 박 헌, 방 욱, 양한웅, 우제호, 이경석, 이기일, 이승용, 조성환
●전북(11) : 권혁도, 김성문, 김정권, 김필영, 박계용, 안근환, 오연재, 유건수, 이관종, 이상호, 장윤구
●충북 (7) : 김인구, 김진관, 민병광, 안희섭, 이광일, 정해천, 최성호
●경남(21) : 김광일, 김길중, 김상훈, 김홍기, 김희술, 박상용(11-116), 송정규, 신성철, 유병선, 윤명노, 이창석, 이창주, 임광수, 임휘국, 장성호, 전상진, 정병섭, 조기충, 조윤래, 황만호, 황태훈
●경북(25) : 김성수, 김영복, 김용대, 김재욱, 김태석, 민홍기, 박상용(08-102), 성종경, 심상제, 엄대진, 오명렬, 오명진, 윤주석, 이경훈, 이교일, 이상훈, 이준영, 이재영, 임기조, 정재모, 최종구, 한석준, 한정훈, 황민기, 현호진
●부산(11) : 강봉철, 권중기, 김창일, 문제삼, 박광성, 백승조, 이성훈, 임대원, 전득수, 정의식, 최충근
●포천 (2) : 설태현, 은봉길 ●의정부(1) : 이찬영
●인천 (7) : 강병삼, 김상규, 이수백, 정지명, 최승대, 최학수, 한상현
●수원 (2) : 고재훈, 이현호 ●성남 (5) : 김동우, 김한중, 류광수, 최홍배, 황승현
●강남 (8) : 김명웅, 김종화, 김진남, 김충현, 서한식, 심의섭, 이문기, 차학열
●강북서부 (3) : 김희철, 나규봉, 안정철
●강북동부(11) : 강석범, 경진구, 김정식, 박계수, 서인호, 신동출, 신한성, 안찬운, 정행면, 조경현, 차영식
●경남 진해(1) : 배덕술 ●경북 포항(3) : 김인겸, 방호중, 한운용 ●전남 신안(1) : 김장수
●제주도 (2) : 강길남, 안건세 ●인천 강화(1) : 함진식 ●인천 옹진(1) : 윤형중
■직장예비군중대장 : 16명
●전남(1) : 장환익 ●충남(1) : 박준일 ●충북(1) : 정희용
●경남(3) : 김창열, 오영석, 전기모 ●부산(2) : 김성철, 유태섭 ●인천(1) : 전철현
●수원(2) : 김아론, 이동석 ●성남(1) : 이용우
●강남(3) : 김학봉, 장영섭(대학), 한기동 ●강북서부(1) : 김종국
■행정담당군무원 : 12명
●인제(1) : 홍순춘 ●경남(2) : 박정선, 장 석 ●성남(1) : 이세운
●전남(2) : 김성현, 신영현 ●부산(1) : 김동환 ●강남(1) : 한정훈
●충남(3) : 강인석, 김기홍, 도현일 ●고양(1) : 홍명국

■ 부임전 교육
▶ 장 소 : 학생중앙군사학교(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 일 정 :

구 분	연대장/대대장	중대장/행정담당군무원
기 간	6. 2 ~ 6. 5(1주)	5. 26 ~ 6. 5(2주)

▶ 입교등록
- 일 시 : 중대장 / 행정담당군무원('08. 5. 26, 11:00 이전), 연·대대장('08. 6. 2, 11:00 이전)
- 장 소 : 학생중앙군사학교 예비군교육처(02-3403-7302, 9)
- 준비사항 : 신분증, 세면도구, 체육복/운동화, 통장
※ 지역중대장은 수임군부대에서 국동체 ID / PW 확인후 입교
- 복 장 :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착용)

▶ 지역중대장 및 행정담당군무원 임용서류 제출('08. 5. 30일 까지)
- 제출서류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1부), 주민등록초본(1부)
- 제출장소 : 최종 합격지역의 수임군부대(동원처)

최고의 직업
예비군 지휘관
('09년도 전반기 응시희망자)
■ 10개월 완성 과정
■ 개강 : 6월 첫째주(화요일)
■ 수업 : 주 2일(4H/1일)
■ 출제 예상문제 완비
■ 정원제 수업(선착순 마감)
국방공무원 전문학원
원장 홍종표 010-7529-0509
교수 박동창 010-5085-1959
사무실 042) 222-0509
대전/중구/선화동(한빛빌딩 2층)
서대전역 및 대전역 10분 거리
(대전지하철 중앙로역 7번 출구)

GM DAEWOO
"5월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혜택1) 윈스톰, 토스카 DMB네비게이션 무료증정
혜택2) 차량할부시 최저이율
혜택3) 최저금액으로 윈스톰, 토스카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전차종 상담가능
GM DAEWOO 군가족 판매담당
이달호 과장 (HP:011-305-8750)

전국 한글 지형도 탑재
칼라GPS출시!!
GARMIN 레전드 Cx 칼라 출시

디지털 지형도 CD 출시 (포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수입판매원 네베상사/NEVE Corp.
서울 중구 저동 2가 47-15번지 문화빌딩 1층 TEL 02 515 9646/FAX 02 513 6055
www.garmin.co.kr

국방일보 구독자 주소변경 안내
국방일보는
구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되도록 하기 위해
독자창구를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사, 사무실 이전 등
주소변경 사유 발생시 연락 바랍니다.
◈ 연 락 처 :
일반 02-2079-3851~5 ,
군 904-3851~5
신문부 제작팀 발송담당
◈ FAX : (02)2079-3709

"개인회생"
법원의 도움으로 빚을 탕감받으세요.
모든공무원,회사원,자영업자,일용직 해당
▪ 신청후 급여가압류해제조치, 경매,채권추심 중지,금지.
▪ 현재 카드돌려막기중. 워크아웃, 배드뱅크진행중인사람
▪ 금융권,비금융권,사채,보증채무,물품대금등모두포함
▪ 현재의 소득에서 생계비를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최장 5년간(60개월)변제후 잔존채무(원금,이자)100%탕감
▪ 신청후 현재직업(소득)유지.정상적인경제활동가능
공적구제제도를통하여 신 용 회 복
빚에서 빛으로... 법무사 강영태 1588-2171

월 5만6000원이면 고급 스쿠터가 '내꺼'

최이무 티스고리아는 최무 125cc급 스쿠터 '쿠키'를 출시하고 제주전 날인, 활부 판매에 나섰다. 오는 5일 30일까지 180만원대의 모델을 12개월간에 판매한다.
24개월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인당에 58,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 125cc오토바이와 같이 대시보드 디자인을 채용했다. 설은이는 최형에 디자인도 세계정이나, 편리극동으로 사용시 휘발유리터(16000원) 50km를 운행할수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인 스쿠터이다. 가격이 부담이 적어 소규모업무, 주말, 레저용으로 사용하기 좋다. 1년무상 A/S, 3년보증서비스를 해준다.
구입문의 070-7586-5540